

레저 & 트래블

덕유산 겨울 등반

눈꽃 속으로 '황홀한 冬行'



덕이 많고 너그러운 모산(母山)이라 이름 붙여진 덕유산은 눈이 내리면 청량한 겨울 하늘과 은빛 물결, 가지마다 눈꽃이 어우러져 황홀한 설경을 연출한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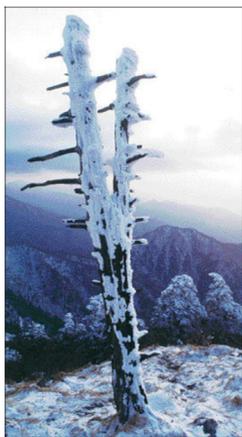
겨울이 제법 깊어간다. 하지만 겨울은 얼니노 현상으로 인해 따뜻한 날씨 탓에 소담스러운 눈도 잘 오지 않아 겨울 맛이 덜하다.

덕유산에 눈이 내리면 눈꽃이 피어난다. 눈꽃은 철쭉과 주목군락, 구상나무에 피고 덕유산을 품은 백두대간 자락도 순백의 물결이 연봉을 따라 요동친다.

덕유산은 덕이 많고 너그러운 모산(母山)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최고봉은 향적봉(해발 1614m). 남한에서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다음으로 높다.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 등반은 무주구천동 삼공리에서 산행을 시작해 백련사를 거쳐 오르는 게 기본 코스. 9km에 이르는 등반길은 왕복 7시간이 소요된다.

백련사까지 길은 순탄하지만 백련사에서 향적봉까지는 상당히 힘이든다. 가족을 동반한 산행이라면 향적봉 아래 설천봉까지 무주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곤돌라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



설천하루스에서 단 15분이면 2천600여m 산을 훌쩍 올라선다. 해발 1,525m의 설천봉 정상 휴게소를 지나 왼쪽으로 50m쯤 가면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 입구다. 설천봉에서 향적봉까지 나무계단을 따라 줄곧 눈꽃터널이 이어지는데 겨울 햇살에 부서지는 눈발은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반짝이고,

향적봉 등반 왕복 7시간 가는 곳마다 한폭의 그림 가족·연인끼리 산행 땀 곤돌라 이용하며 차 한잔 무주리조트 스키 즐기고 눈밭에서 노천욕도 이채

나무가지 위에 피어난 새하얀 눈꽃은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하다. 설천봉에서 향적봉까지는 30분이면 족하다. 중봉 쪽에는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을 간다'는 주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향적봉 정상에 서면 시야가 탁 트인다. 주변 산봉우리들이 금방 손에 잡힐 듯 하다. 동물 무

전라도 맛 기행

화순읍 두부꽃 '두부 한마당'



'두부 한마당' 요리는 다채로운 재료 만큼이나 다양한 맛을 자랑하는 건강식단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두부 뷔페' 골라먹는 재미 다양한 '삼합'의 모미 가득

요즘 두부가 몸에 좋다는 건 식탁 속에도 못든다. 그만큼 두부를 메뉴로 소비자들의 미감을 자극하는 집들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맛있게 먹는 방법론을 고민하는 집은 드물다. 화순읍에 있는 두부요리 전문점 '두부꽃'은 어떻게 먹느냐를 컨셉으로 장사하는 집이다.

주인 이복실(49)씨가 엄지를 짚는 '두부 한마당'이라는 메뉴는 두부의 뷔페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식단이다.

두부를 먹는 기본은 돼지고기, 홍어, 김치 등 이른바 전형적인 삼합이다. 여기에다 이 집에서는 오리훈제, 북어김치회무침을 추가해 다양한 삼합의 모미를 맛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두부를 축으로 홍어와 북어김치회무침이 삼합이 되고, 오리훈제와 부추를 곁들이면 또 하나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다소 이질적인 것 같지만 음식들의 절묘한 앙상블로 인해 젓가락이 바빠진다.

집시에 담긴 두부도 두 종류다. 순두부와 삭다른 미감을 안겨주는 함초두부가 그것이다. 함초두부는 바닷가 염전에서 자생하는 함초를 두부에 곁들이는 것으로 맛이 일품이다.

주인 이씨는 "콩을 장시간 불릴 경우 수용성 영양분이 손실되는 점을 감안, 즉석에서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영양가가 많다"고 자랑한다.

두부를 싸는 보쌈치지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두부 맛보다는 김치맛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맛같다.

식전에 입맛을 돋구기 위해 제공되는 따뜻한 콩물은 덩이다. '두부 한마당'은 가족들에게 적합한 식단이다. 4인 기준으로 한 접시에 3만5천원. 두부를 즐긴 뒤 공기밥을 추가할 경우 1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문의 061-374-0402

/윤영기기자 penfoot@

맛 : ★★★★★
분위기 : ★★★★★
가격안목 : ★★★★★
(★ 5개 만점)



대인동삼일부동산
(062)223-1140, 2210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정우부동산랜드
(062)71-0823
남구 석정동(전) 1876평 매도
도곡 전원주택부지 147평 매도

중개법인 리치부동산관리(주)
(062)233-9311~3
화순군 남면 대곡리 청용골
당 10,123㎡(3,062평)
농업보호구역
평당 30,000원

빛고을리드공인중개사
(062)674-1500
비전있는 남구.
지금이 부지의 최적기입니다.
남구 남평면 노동리
대지 650평 당25만원 절터 별장
전원주택지 최고지역

첨단월계공인중개사
(062)972-4585
급매매
첨단 삼소동
첨단인근 30m도로점
1000평 공장·창고부지적합

국민공인중개사
(062)383-5221
건물
09억 8천 빌딩
09억 8천 빌딩
09억 8천 빌딩

무등공인중개사
(062)383-5221
건물매매
상무지구 보죽금 12억
월세2,200만원 매매가 52억

알파공인중개사
(062)974-0229
건물매매
매매가 : 22억
음자 6.5억, 보죽금 5억
월세 1,200만원